



「교육무상화」 논의의 경위와 특징 : 2020 년 제 203 회 2021 년 제 204 회 국회심의로부터

渡部, 昭男

김, ヨンジ유(翻訳)

(Citation)

高等教育における経済的負担軽減及び修学支援に係る法・制度・行財政の日韓比較研究

(Issue Date)

2021

(Resource Type)

research report

(Version)

Accepted Manuscript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8565>



「교육무상화」 논의의 경위와 특징

— 2020 년 제 203 회~2021 년 제 204 회 국회심의로부터 —

○와타나베 아키오 (오사카 세이케이대학교 · 특별초빙교수)

키워드 : 코로나 재난, 학업의 지속, 생활지원, 현금급부·현물급부, 식량지원, 생리(용품)의 빈곤

서(序). 과제와 방법

제 201 회 (2020.1.20-6.17) 와 관련한 작년의 보고에 이어, 본 보고에서는 제 203 회 (2020. 10.26-12.5) 와 제 204 회 (2021.1.18-6.16) 의 국회심의회에 있어 「교육무상화」 논의의 경위와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회의회의록 검색 시스템 (<https://kokkai.ndl.go.jp/#/>) 을 이용했다.

1. 최근 3 년 제 198-204 회에 있어 심의의 경위

최근 3 년간 심의의 경위 (경향) 를 키워드를 이용해 검색했다(아래 표). 용어란의 「&」 는 AND 검색 (양쪽을 포함하는 발언이 있는 회의록) , 「|」 는 OR 검색 (어느 한 쪽이 포함된 발언이 있는 회의록)을 표시하고 있으며, 각 용어를 넣어 간이 검색한 결과를 「○건 · ○개소」 로 기재했다 (2021.7.1 현재, 와타나베 작성) . 그 다음, 각 용어의 건수가 많은 상위 2 위 (노출빈도 [건수÷총건수] 로 보정) 까지를 색깔로 표시했다.

년	회기(월일)	회차	회의록 총수(건)	고등교육 무상	대학 등& 수학 지원	입학금	학비& 감면	학생& 코로나 재난	가계 급변	공공 학생	학업 지속	학비반액/ 학비반감	원격수업/ 대면수업	식료품 지원	생리(용품) 의 빈곤
2019	1.28-6.26	198 통상	721	35·63	34·424	27·54	37·346	0·0	3·6	0·0	4·6	0·0	2·2	0·0	0·0
	10.4-12.9	200 임시	364	4·6	11·35	2·2	4·18	0·0	0·0	0·0	0·0	0·0	1·1	3·3	0·0
2020	1.20-6.17	201 통상	730	16·20	33·175	21·35	40·237	91·724	18·41	10·21	15·33	7·9	31·60	5·6	0·0
	10.26-12.5	203 임시	297	2·3	8·37	2·3	10·43	70·677	4·10	2·3	6·11	0·0	9·30	8·9	0·0
2021	1.18-6.16	204통상	721	4·4	19·83	9·12	19·61	283·2,657	12·14	9·9	11·14	2·2	24·47	18·24	14·27

2019 년 제 198 회 (2019.1.28-6.26) 에서는, 「고등교육무상」 「대학 등&수학(修學)지원」 「입학금」 「학비&감면」 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듯, 소비증세분의 용도 변경에 따른 고등교육 무상화 정책으로서 대학 등 수학(修學)지원 법안이 심의, 성립되었다. 2020 년 제 201 회에서는, 대학 등 수학(修學)지원법의 시행에 관한 논의와 함께, 「학생&코로나 재난」 이 국회 회의록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처럼, 코로나 재난 속에서 「가계급변」 에 대한 대응이나 「공공 학생」 의 「학업 지속」 과 관련한 정책이 논의되었다. 그 후 제 203·204 회에서는, 「학생& 코로나 재난」 이 「201 회 : 91 건 (빈도 0.12) · 724 개소(個所)」 ⇒ 「203 : 70 (0.24) · 677」 ⇒ 「204 : 283 (0.39) · 2,657」 으로 증가해, 대학 등 수학(修學)지원법이나 학업의 지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 현금 급부(給付) 외에도, 키워드 「식량 지원」 「생리 (용품)의 빈곤」 으로 상정되는 공공한 학생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현물 급부(給付)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2. 제 203·204 회 국회의 특징①: 고등교육무상화 및 대학 등 수학(修學)지원법에 관한 논의 그 후

대학 등 수학지원법은, 「저출산 사회 대책 대강(大綱)과 아동 빈곤 대책에 관한 대강(大綱)을 바탕으로」(204 참·내각위 18 호 2021.5.13 사카모토 테쓰시(坂本哲志) 내각특명 담당대신)가 설명해주듯, 저출산 대책·빈곤 대책에 속한다. 대상을 저소득층(대학생 등의 약 10%)에서 중간소득층으로 확대하는 것이 당파를 초월한 문제의식이 되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일본형 고등교육 각출금(醸出金) 제도(J-HECS: 수업료 등을 국가가 대신 내고 졸업 후에 지불 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하기우다 코우이치(萩生 田光一) 문부과학 대신도 「중간소득층의 고등교육비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주목하고 있다. (203 참(参)·문교과학위(文教科学委)2 호·2020.11.17 우에노 미치코(上野道子) 의원에 대한 답변)。 또한 공명당은 「다자녀 세대나 중간소득 세대의 교육비 부담을 배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4 중(衆)·본회의 3 호·2021.1.21 이시이 케이이치(石井啓一) 의원)。 현재 상황은 「GDP 대비 공적 재정 교육지출의 비율이 3.1%...38 개국 중 37 위...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어울리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부과학 대신(大臣)은 말하고 있다 (203 참(参)·문교과학위(文教科学委)2 호·2020.11.17 후나고 야수히코(舩後靖彦) 의원)에의 답변)。

3. 제 203·204 회 국회의 특징②: 코로나 재난 속 학업의 지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현금급부(給付)

대학 등 수학(修學)지원 제도의 채용 수(數)는 예정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2020 년도 예산: 51.4 만인분⇒채용자: 전기 25.7 만인, 후기 플러스 알파 정도/204 중(衆)·예산위 제 4 분과회 2 호·2021.2.26 미야모토 토오루(宮本徹)의원)。 한편, 긴급 지원에 있어서는 일정의 성과가 있었다고 문부과학 대신은 보고 있다 (중퇴자수가 전년도보다 억제됨/학교가 추천해야 한다고 판단한 전(全)학생 약 42 만명에게 긴급 급부금 지원/대학생 학업 지원 긴급 패키지를 2020 년 12 월에 개정해 무이자 장학금을 충실화하고 휴학생 대응 등의 지원책을 추가/ 동상(同上) 하기우다 문부과학 대신)。 2021 년을 맞으며, 입헌민주당·무소속회파와 일본공산당은 코로나 특별급부금 법안 (2021.3.1, 204 중법(衆法)4 /공공한 저소득세대나 학생 등에 1인당 10 만엔 지급)을 제출한 것에 대해, 여당·정부는 자녀를 둔 저소득층 세대에 대한 특별급부금 (2021.3.16 관계긴급각료회의/대상을 한부모 세대(世帯)에서 자녀를 둔 주민세 비과세 세대 전체로 확대해 1인당 5 만엔)을 결정했다. 의사록(議事錄)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204 중(衆)·문부과학위 6 호·2021.3.17 시모조 미쓰(下条みつ) 의원)이라는 지적, 「대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도록, 대학생의 생활을 지원하도록, 적어도 다시 한번」(204 참(参)·예산위 14 호·2021.3.19 렌호(蓮舫) 의원)이라는 호소, 「대학생 자살자가 약 10%나 증가하고 있음」(204 중(衆)·문부과학위 7 호·2021.3.24 키이 타카시(城井崇) 의원)이라는 주의환기 등이 확인되었다。

4. 제 203·204 회 국회의 특징③ : 코로나 재난 속 곤궁한 대학생의 생활을 지원하는 현물 급부(給付)

코로나가 장기화·심각화 됨에 따라, 곤궁 학생의 생활을 지원하는 현물 급부(給付) 정책이 국회 심의에도 상정되고 있다. 「식량지원」은 개발도상국, 재난지 지원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언급되어 왔지만, 제 201 회에서는 코로나 재난 속 농업관계자를 지원하는 대책으로서 대학생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대책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미이용 식품을 정부가 인수해서 빈곤세대와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대책/201 중(衆)·예산위 27·2020.6.10 모리 나쓰에(森夏枝) 의원). 제 203·204 회에서는, 각 대학이나 민간단체 등에 의한 식량지원의 실제 예가 국회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즈쿠바대학 [식량지원 1.22] : 긴 줄로 3 천 명분을 나누어 주었지만, 부족해서 다음 날 추가/일본민주청년동맹 [2020 년 봄부터 대학생 식료품 지원 활동] : 전국 45 토도후켄(都道府県)、8 백회 이상 실시, 3 만 8 천 명분 이용/204 참(參)·예산위 11·2021.3.15 키라 요시코(吉良よし子) 의원). 제 204 회에 처음 등장한 「생리(용품)의 빈곤」에 관한 다양한 발언들로부터 문교(敎關)관련 내용을 간추려 보면, 대학생의 20 퍼센트가 금전적 이유로 생리용품 구입에 곤란 (「#모두의 생리」에 의한 앙케이트 발표 / 204 중(衆)·문부과학위 3·2021. 3.10 하타노 키미에(畑野君枝) 의원), NHK의 취재에 용기를 갖고 증언한 대학생의 이야기 (204 참(參)·문 교과학위 3·2021.3.16 이토 타카에 (伊藤孝恵) 의원) 를 소개해 문부과학성 등에 대응검토를 요청하고, 국회에서의 약속을 받아냈다.

결. 고등교육에서 「현금급부+현물급부」 대책 논의에

와타나베(2017) 「점진적 무상화 프로그램 (고등교육판)」의 틀(오른쪽 도표) 을 참고하면, 대학 등 수학(修學)지원법은 저소득층 한정의 「A2 : 학비감면의 확충+B1 : 급부(給付)형 장학금의 확충」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재난 속에서 곤궁학생의 지원, 학업의 지속은 「B2 : 무이자 학생 대출(loan)의 개선」 「B4 : 학내 근로 장학금 등의 확충」 「C

그분	소구분 / 레벨	국가	지방	법인	민간
A 학비	A 1 : 학비 자체의 경감화				
	A 2 : 학비감면제의 확충				
B 장학금· 학생대출등	B 1 : 급부형 장학금의 확충				
	B 2 : 무이자 학생 대출의 개선				
	B 3 : 유이자 학생 대출의 감축				
	B 4 : 학내 근로 장학금 등 확충				
C 수학지원	C 1 : 학습비의 지원				
	C 2 : 학생 생활비의 지원				
D 취로지원 ·생활보장	D 1 : 취로지원				
	D 2 : 생활보장				

1 : 학습비의 지원」 「C2 : 학생생활비의 지원」까지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 203·204 회에 달해서는 「현금지급+현물지급」의 테마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사(謝辭) : JSPS 과학연구비(科研費)19K02864 의 조성(助成)을 받았음)